



강진 김경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호자 노릇 톡톡

장성군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호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은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비롯해 서부 분소, 북부 분소 세 곳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난해 2,000여 농가에 9,116건의 농기계를 대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본소만 운영했던 2015년(5,970건)보다 52%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임대 횟수가 크게 늘어난 건 지난해부터 3개 사업소를 구축해 임대사업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년과 2016년에 늘어난 임대 건수 대부분은 본소의 실적이다.

장성군은 농업인들의 임대사업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본소 건립을 추진해왔다. 2009년 본소에 이어 2016년 삼계면에 서부권 본소를 건립했으며, 북일·북이·북하면 농민을 위해 지난해 북부권 본소를 건립함으로써 3개 권역별 임대사업소 건립을 마무리했다. 3대 권역별 임대사업소 건립은 민선 6기 유두석 장성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고품 농업인

3개 권역별 임대사업소 이용율 급증 임대건수 전년보다 52% 이상 증가해



을 비롯해 중소 규모 농가가 많이 이용하는 밭작물용 소형 농기계를 비롯해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를 갖춘 3대 권역별 임대 사업소를 높이는 데 한 몫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이용 요금이 저렴한 점도 임대 수요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현재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의 0.25~0.3%로 전국

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장성군은 농기계 임대 사업이 일손 부족과 농기계 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기 영농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대사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한 농업인은 "비싼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용하니 이만한 효자가 따로 없다"라면서 "최신 농법에 걸맞은 새로운 농기계도 많이 들어와 더욱 자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가장 많이 임대된 농기계는 동력제초기이며 보행관리기, 농업용 굴삭기, 휴대용 자동 전동기, 풍 정전기 경운기, 풍 탈곡기가 그 뒤를 이었다"라면서 "일손 부족 현상에 따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 쓰이는 기종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서부와 북부 지역의 농업인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 탓에 임대사업소 이용률이 낮았다"면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다"라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061-390-8439), 서부 분소(061-390-7192), 북부 분소(061-390-7197)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반정모 기자

영광군,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영광군은 지난 2일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상인회 음식집, 숙박업, 이·미용업, 공동주택 경비업, 농림·어업 등 직능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홍보물 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한 사업주들에게 지원 요건 등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의 도입 취지와 신청서 작성 및 접수절차 및 사

회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최강훈 부지경제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흥군, '농작물 한파 예방관리' 기술지도

수랑감소·기형과 발생·각종 병해 발생 증가 우려

고흥군은 최근 연일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면서 시설채소 및 과수류의 동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급년 겨울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시설채소에서는 생육정지 현상과 꽃떨어짐, 착과율 저하로 수량감소와 기형과 발생으로 이어지고 비닐하우스 안이 다습하게 되어 각종 병해 발생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보온자재 및 효율적 난방관리로 시설 내 난방·보온력을 높여 주고, 환기팬 및 공기유동팬 가동으로 다습에 의한 병해 발생을 예방하고, 맑은 날 낮에 적극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저온으로 인한 잿빛곰팡이병 예방 등 재배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생선양이 가장 많은 유자, 석류 등 고품의 주요 과수의 동해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과수 한중해(寒凍害) 피해가 우려되어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과수의 동해는 저온의 지속여부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르며, 저온강

하 속도 또는 동결 후 해빙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심하다 또한, 전년도 결실과다 및 병해충 피해가 있었거나 조기낙엽 또는 가을 늦게까지 영양생장이 계속된 경우 더욱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해피해를 받기 쉬운 과원은 미리 배수관리를 개선하여 뿌리기능을 강화하고, 비탈이 심한 지역은 방풍림이나 방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새로 심은 1~2년생의 어린유목이나 내한성이 약한 과수는 뿌리근처의 지체부위를 1m 정도 깊이나 방한매트 등으로 싸매어 한해예방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른 아침 찾아가는 시설원에 현장견학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지도 등을 통해 잦은 기후변화와 난방비 증가 등 농업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자"고 농가에 당부하였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Safe 함평, Save 생명' 안전한 함평이 생명을 지킨다

군, 긴급 재난안전 관계기관 회의 개최해

함평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근 잇단 화재사고와 관련, 안전번호 준수 주제로 '긴급 재난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대형 화재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안전사고로부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

관기관·사회단체·사회복지시설·병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급 기관 사회단체에서 관리·운영 중인 시설의 자체 점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안 군수는 각 실·과·소에 소관 대상시설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인이 발견되면 가능한 현장

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토록 주문했다.

그 동안 함평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안전교육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대형 숙박 및 목욕시설 안전점검, 전통시장 화재예방, 의료기관(임원실 운영) 안전점검 등 관계 실·과·소 별로 안전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안 군수는 "우리 군에 최근 교통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다"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더욱 힘쓰자"고 말했다. 또, "군민 여러분께서도 높은 군민의식과 동료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보성군, 설명절 대비 수산물 특별단속 실시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보성군은 설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조기, 갑, 명태, 굴비, 등의 품목 위주로 실시하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큰 수산물인 갈치 등에 대해 마트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의 벌금,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하며,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꼼꼼히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체적인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